



“응급의료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응급실CT, 교수의료진 당직제 도입



고려대 안산병원(병원장 최재현) 응급의료센터가 진화하고 있다. 안산병원 응급진료센터는 응급의료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빠르고 전문 진료시스템을 갖추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것. 안산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용 CT(컴퓨터단층촬영) 가동으로 하드웨어적 인프라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영상의학과 실시간 판독시스템, 각 전문 과목 교수 및 의료진의 응급센터 당직 제도 운영을 통한 소프트웨어적 인프라도 개선해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의료 시스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응급의료체계의 업그레이드는 뇌졸중, 급성 심혈관계 질환 등, 응급을 요하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사회적 의료 인프라를 갖추어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응급센터 전용 64채널 CT 진단을 빠르게, 1초를 아껴라

고려대 안산병원은 응급의료센터에서 빠른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4월부터 최첨단 64채널 CT장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64채널 CT장비는 응급의료센터 내부에 설치되어 응급환자 진단의 신속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삼차원영상(3D)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사가 가능한 장비다. 또한 1회전 스캔으로 1~4개의 영상을 얻어 내는 다른 CT장비와 다르게 0.4초 만에 64개의 영상을 얻어 검사 시간을 최소화 한다. 또 0.5mm의 절편두께로 이차원영상뿐만 아니라 고해상도의 삼차원영상까지 구현이 가능해 입체적이고 정확한 진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심장, 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어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박리, 폐색전증 치료에 있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이 같은 고성능의 64채널 CT를 응급의료센터 전용으로 마련한 것은 응급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급성질환자에 대한 치료에서도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 응급환자 초기대응에 있어 큰 효과를 볼 가져올 것이다.

IT 인프라를 이용한 실시간 판독 시스템

안산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첨단장비뿐만 아니라 영상의학과 의료진의 판독 시스템 역시 한층 빨라진다. 응급의료센터에서 CT촬영이 끝나면 실시간으로 영상의학과 의료진에게 영상을 전송, 이에 대한 판독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실시간 판독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로써 첨단 IT 인프라를 이용해 원거리에 있는 영상의학과 교수에게 64채널 CT검사의 영상을 전송하여 전문 과목에 따라 결과를 분석, 판독함으로써 CT검사의 정확한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검사 결과 판독도 전문 의료진에게 맡김으로써 응급의료체계의 정확성을 더하고 환자에게 올바른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응급실에 긴급하게 후송되는 각종 사고 환자뿐만 아니라 뇌출혈, 심장마비와 같이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가 생명에 직결되는 환자의 치료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수급 의료진의 당직제 응급진료 전문성 더 한다

실시간 판독과 함께 또 다른 변화는 바로 교수급 의료진의 상시근무, 즉 당직제 운영이다. 교수급 의료진 당직제의 핵심은 응급의료센터에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교수가 응급의료센터에 항시 대기한다는 점과 소아청소년과와 일반내과, 신경외과 전공의가 센터 내 주야간 근무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진료에 신속성을 더했다는 점이다. 특히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교수의 당직제는 응급센터에 뇌혈관질환이나 심혈관 질환과 같이 일분일초를 다투는 긴급환자 발생 시 당직 교수의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가 가능하고 실시간 판독에 따라 시술 및 수술을 실시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질환을 신속히 치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혈관, 심장, 뇌혈관 관련 환자의 경우 상황 발생 2시간 이내 치료 및 수술이 이루어져야 생존율이 높은 만큼 안산, 시흥, 화성 등 경기 서남

▶ 3면에 계속

Contents

2p

베스트헬스케어
간



3p

헬스가이드 1
A형간염, 수두 경고



4p

부서탐방
심장기능검사실



5p

클릭! 이사람
간호부장 김정숙



7p

여행정보
둘레길



7p

친절리더칼럼



어루고 달래야 하는 장기 ‘간(肝)’

‘하루 몇 번 당신의 간과 이야기 하십니까?’



‘간’은 침묵의 장기이다. 일반적으로 장기(臟器)들이 외부 충격이나 암세포 등에 의해 손상을 입는 그 즉시 혹은 빠른 시간에 예후가 나타나는 것과 달리 간은 오랫동안 손상이 진행 된 후에야 그 증상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복부장기의 통증은 피부와 다르게 통증감각수용체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간암은 위암 다음으로 한국인 사망률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 약 5~10%가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이다. 간염바이러스에 감염 될 경우 급성간염과 만성간염으로 발전되며 오랜 기간 몸속에서 문제를 일으켜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이어진다. 둘째는 세계 최고의 술 소비량이다. 간질환은 특히나 40대 성인에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한다. 이는 우리나라 40대가 직장가 가정으로부터의 스트레스로 인해 술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에서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간암은 다른 암에 비해 치료방법이 다양하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간 전문 내과의와 외과의 그리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유기적인 협진으로 간암을 치료하고 있다.

암 걸리면 암세포절제와 방사선치료뿐?

암 치료방법은 크게 장기에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과 방사선을 이용한 방사선치료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간암은 환자의 간이 치료 후 얼마나 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치료방법이 선택된다. 내과적 치료방법으로 간동맥주입식치료가 대표적이고 외과적인 절제술과 이식술 그리고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하는 간색전술과 고주파열치료술 등이 있다. 간암의 다양한 치료방법 중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 전문의 임상경험이 중요하다. 고려대 안산병원 간암클리닉은 소화기내과 임형준, 김정한 교수, 간췌담도외과 송태진, 한형준 교수 그리고 영상의학과 차상훈, 정환훈, 이승화 교수가 간암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간암이 의심되는 환자가 안산병원을 찾게 되면 혈액검사와 CT, MRI 등 영상장비를 통해 간암을 진단하게 된다. 조직검사가 뒤따라야 하는 다른 암과 달리 간암은 최근 조직검사 없이도 그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간암도 초기에 발견한다면 치료 확률 또한 높아진다. 간경변 등의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들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한번은 꼭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정기검진과 함께 간섬유화 스캔검사도 간 건강을 체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간섬유화 스캔검사란 진동자와 초음파를 이용, 간 섬유화(딱딱해진) 정도를 평가해 간경변증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일단 바늘을 이용한 간조직 검사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신체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고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반복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초기에 발견하게 된다면 치료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신의 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달라져

안산병원 소화기내과에서는 간동맥주입식치료를 통해 간암치료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 간동맥주입식치료란 간 동맥으로 통하는 관을 삽입해 그 관을 통해 항암제를 투여해 간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방법이다. 보통은 4주를 주기로 해 3일간 항암제를 투여하게 된다. 소화기내과 임형준 교수는 “간동맥주입식치료는 전신 항암치료에 비해 그 독성이 적고 간암세포만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며 “다른 시술에 비해 부작용이 적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고 말했다. 중재시술팀에서는 간동맥색전술, 경피적 알콜주입술, 고주파열치료 등을 통해 간암을 치료하고 있다. 특히, 황경막 아래, 복강 노출 등으로 치료가 어려운 암세포의 경우도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주변장기 손상 없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고주파열치료가 가능할 만큼 많은 임상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고주파 열치료란 간암 내로 주사 바늘을 통해 전극을 삽입하고 전류를 통하면 이 전극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열에 의해 간암 조직을 파괴하는 치료술이다. 고주파열치료는 주로 암세포의 크기가 4cm 이내로 작고 1~3개인 경우에 효과적이다.

조기발견 통해 복강경으로 후유증 없이 수술

간의 외과적 치료에 있어서는 다른 암과 달리 ‘간암치료’의 특징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 제거술은 암세포가 붙어 있는 간 조직을 절제한 후 남아 있는 간이 얼마나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지를 판단 한 후 수술을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전신상태가 양호하고 간 기능이 유지되는 경우 ▲복수와 황달이 없는 경우 ▲종괴의 크기가 작고 개수가 적은 경우 ▲종양이 여러 개인 경우는 좁은 범위에 모여 있는 경우 ▲오른쪽 또는 왼쪽 간 한쪽에만 존재하는 경우 ▲경계가 분명한 경우에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간암 세포의 크기나 위치, 개수 등을 고려해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안산병원 간췌담도외과에서는 초기에 간암을 발견해 복강경 수술을 통한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다. 복강경 수술은 일반 개복수술에 비해 환자 몸에 남는 흉터가 작고 입원기간 또한 1주일 이내로 줄어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안산병원 간췌담도외과 송태진 교수는 “최근 들어 건강검진의 발달로 인해 간암의 경우에도 조기 발견이 많은 편이다”라며 “비교적 이른 기간에 발견된다면 복강경 수술을 통해 치료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선 고위험군 즉, B형, C형간염 보균자, 간경변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정기적인 간검사가 필요하다. 또, 일반일들도 일주일에 술자리를 한번 미만, 소주 2잔 이하로 줄이고 금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비만을 관리하고 지방간 예방에 힘을 기울이는 것 또한 필요하다. 🍷

▶ 1면에 이어

부 지역의 응급 환자 발생 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적 의료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일반내과, 신경외과 역시 전공의를 응급의료센터에 상주는 것 역시 환자의 상황에 맞는 전문적 진료를 단 기간 내 실시, 진정한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최재현 병원장은 “환자는 24시간 언제든지 아플 수 있는데 교수급 의료진은 낮에만 근무한다. 밤에 응급 콜을 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진료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뒀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정확하고 빠른 응급체계 환자의 생명을 위한 업그레이드

고려대 안산병원의 응급의료센터 변화는 현재 응급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특히 지역 응급환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과 인프라에 장비 및 시설의 업그레이드,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 과목 의료진의 실시간 협진 시스템을 추가함으로써 생명이 위독한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는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의 응급의료시스템을 국내 시스템과 조화시킨 것으로 의료의 체계적 구조를 기반으로 응급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산병원은 또한 지역응급의료체계의 유기적 협력을 펼치고 있다. 안산병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병원 전(前)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력’을 맺고 환자가 사고 지점부터 병원응급진료센터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함께 힘쓰게 된다. 특히 이번 협력에선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을 도입,



본격적인 유비쿼터스 진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이란 응급환자가 이송되는 구급차량 안에서 환자의 심전도를 비롯한 호흡, 맥박, 체온, 혈압, 산소포화도 등 생체정보를 도착 예정인 병원 응급진료센터 의사에게 바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또, 육안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동영상까지 도입된다. 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의사의 의료지도를 구급대원이 신속하고 적절히 처치함으로써 환자의 소생률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현 병원장은 “(안산병원엔)작은 병원이지만 최고를 지향하는 병원이 될 수 있다는 선도적 비전을 갖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응급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헬스가이드 1

전문가와 보건당국, A형 간염, 수두 등 유행 경고 개인위생 철저와 예방접종으로 우리 아이 방어하자



다시 유행하는 A형 간염

A형 간염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특히 전통적으로 봄에 많이 유행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9년 A형 간염 환자가 총 1만 5천 4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91%나 증가한 수치이다. A형 간염은 소아에서는 거의 증상이 없는 불현성 감염을 보이거나 연령이 올라갈수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초기 발열, 오한, 두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심해지면 식욕이 떨어지고 복통, 구역질,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아주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황달과 함께 소변색이 짙어지게 된다. A형 간염은 대부분 대변이나 입을 통해 전파되며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한 감염도 가능하다. 40, 50대는 자신도 모르게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세대들은 비교적 깨끗한 환경에서 성장과정을 거쳐 항체 보유율이 20% 미만이다.

A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어린이의 경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A형 간염의 잠복기는 약 30일 정도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빠른 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증상 발현 시작 전부터 증상 발현 후 1주까지 환자의 대변통해 바이러스가 배출되므로 철저히 격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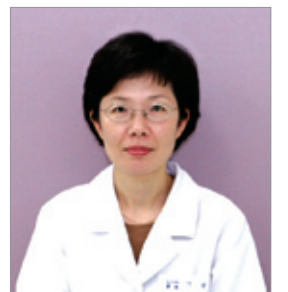
5살 미만 아이들 수족구병 조심

수족구병은 장(腸)내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으로 주로 생후 6개월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들에게 나타난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족구병의 주원인은 ‘콕사키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지난해 첫 번째 수족구병 어린이 사망자의 원인은 ‘엔테로 71 바이러스’로 밝혀졌다. ‘엔테로 71 바이러스’는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 대만 등지에서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2007년 17명, 2008년 40여 명의 어린이를 숨지게 했다. 수족구병의 주요 증상은 수포이다. 3일에서 5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손바닥, 손가락의 옆면, 발뒤꿈치나 엄지발가락 그리고 입안에까지 수포가 생겨난다. 수포는 찢히나 뽕알 크기 정도이며, 가렵거나 아프지는 않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을 호소하지 않아 바이러스가 혈관을 타고 몸 곳곳으로 퍼져 뇌수막염이나 간염을 일으킬 수 있어 아이들의 손과 발 등에 이상한 수포가 보이면 일단 의심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아직 수족구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장바이러스의 종류가 70가지가 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출 후 소금물 양치 및 손 씻기, 물 끓여 마시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수족구병이 발생하면 되도록 집에서 쉬도록 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나 주변 환경을 깨끗이 소독해야 한다.

학교에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 수두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08년 학교 전염병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77%가 수두를 앓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두는 보통 10살 이하의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수두에 걸리게 된다. 수두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2~3주이며 발열, 권태감 등의 증상이 있는 후 1~2일 이내 특징적인 수포성 발진이 몸통과 얼굴, 두피에 나타나고 온 몸으로 퍼지게 된다. 보통 10일 이내에 딱지가 생기면서 호전된다. 수두 발진은 매우 가려우므로 긁다가 이차적인 세균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아이의 손톱을 짧게 깎는 것이 좋다. 드물게 폐렴, 뇌수막염, 혈소판감소증 등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 저절로 낫는다. 하지만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딱지가 앓을 때까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수두에서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환자의 면역이 저하된 경우,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발진 시작 24시간 이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 이정화 교수



내 심장의 ‘멀티플레이어’ 안산병원 심장기능검사실



심장은 평생 쉬지 않고 온몸의 혈액을 순환시킴으로써 물질대사를 비롯해 우리 몸이 살아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 장기(臟器)이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로 심장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심장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늘고 있다. 이런 심장 건강을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을 때 꼭 방문하게 되는 곳이 심장기능검사실이다.

다양한 검사로 심장건강체크

고려대 안산병원 본관 2층에 위치한 심장기능검사실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사로 구성된 8명의 심장전문 전담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심장기능검사실에서는 운동부하심전도, 생활심전도, 생활혈압, 심장초음파, 동맥경화도검사, 인공심박동기 추적관찰, 기립경사도검사시스템 등 첨단 진단 장비를 구비해 숙련된 검사자들이 환자 심장의 작은 소리와 박동에서 건강이상 여부를 찾기 위해 맘을 쏟고 있다. 심장기능검사실에서 시행하는 검사 중 심전도검사는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 등과 같은 심장질환을 빠른 시간 내에 진단하는 검사이다. 운동부하심전도는 심장근육인 심근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나타나는 특징적인 신호를 찾아볼 수 있는 검사로 심장질환의 진단, 치료에 대한 평가와 예후 판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 생활심전도 검사는 환자의 심박수 및 심전도의 변화를 24시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특히 부정맥과 심근 허혈 진단 등에 유용하며 인공심장박동기의 기능 및 재세동기의 기능 등의 평가가 필요할 때도 시행한다.



심장기능 검사만 한다?

심장의 건강을 알아보는 것 이외에도 갑자기 어지러움을 많이 느끼거나 원인 모를 실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심장기능검사실에서 기립 경사검사를 받게 된다. 기립경사검사란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이며 심장초음파를 이용하여 심장의 구조 및 기능을 평가함으로써 선천성 심장질환, 심장 판막질환, 심근증, 심근경색 등 각종 심장질환을 진단하는데 주요한 심장초음파검사가 있다. 이밖에도 심장기능검사실은 체력단련과 더불어 정신수양까지 할 수 있는 고산원프로그램 ‘다스림’을 운영 중에 있다. ‘다스림’은 심장에 부담 없는 전신운동을 통한 심장기능 개선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통한 심장건강을 증진시키는 운동프로그램으로 주로 고혈압을 가진 50~70세를 대상으로 3개월간 진행된다. 지난 5월 10일 30명의 지원자를 모집해 첫 수업을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건강증진과 더불어 정신수양까지 기대하고 있다.

핫라인을 통한 신속한 심장검사, SRS

심장기능검사실에서는 다양한 검사와 시도를 통해 심장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검사만큼 모든 구성원이 2개 이상의 능력을 갖춘 이른바 멀티플레이어가 아닐 수 없다. 구성원들의 업무 숙련도 또한 병원 어느 부서보다 높다는 것이 심장전문 임상병리사의 말이다. 그도 그럴것이 한번 심장기능검사실의 구성원이 되면 이동이나 전직이 거의 없어 오랜 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서 숙련도가 높아져 같은 검사에서 더 많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7년차의 경력도 막내로 불린다 하니 구성원 하나하나가 최상의 숙련도를 자랑하는 이른바 ‘요원’으로 충분히 불릴 만하다. 안산병원 심장기능검사실은 이런 전문 검사 인력과 첨단 진단장비의 의료 인프라를 공유하고자 SRS(Silple Refer System)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SRS제도란 고려대안산병원과 지역의원간의 심장전문간호사들 간 핫라인을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신속한 검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협진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심장기능검사실은 환자에게 보다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지역 의원 주치의에게 알림으로써 지역사회와 공조를 통해 안산병원이 안산지역 주민 건강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환자를 위한 멀티플레이어들의 열정

심장기능검사실을 들어서는 순간 역동적이라는 말을 떠오르게 한다. 그들의 움직임과 말에는 힘이 실려 있고 자신감이 묻어나 있기 때문이다. 매월 2회씩 진행되는 컨퍼런스와 주말 개인시간까지 할애해 각종 학회 등에 참석할 정도로 그 열정이 대단하다. 또한 완벽한 유기체이다. 어느 누구하나 흐트러짐이 없이 맡은바 임무를 완벽히 수행함과 동시에 서로를 잘 지탱해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병원의 최전선에서 고려대 안산병원을 빛나게 하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멀티 플레이어 아닌가 생각한다. 

글 | 원내기자 고재철

“가장 소중한 것은 ‘동료’입니다.” 김정숙 간호부장



5월 12일은 나이팅게일 탄신일이다. 고려대 안산병원 간호부는 이날을 기념해 수요일인 12일을 중심으로 ‘간호봉사주간’을 선정하고 병원 안팎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가졌다.

간호부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계획으로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내가 먼저 인사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실천 하겠습니다’에 이어 올해는 ‘내가 먼저 아끼겠습니다’로

선정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김정숙 간호부장은 “항상 계획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 것”이라고 “하지만 안산병원 간호사들이 한 마음으로 실천하면 안 되는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올해가 3년 계획의 마지막인 만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김정숙 간호부장의 의지는 대단했다. 그녀는 취임 이래로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고려대안산병원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환자 중심의 의료 인프라’ 구축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외부고객 뿐만 아니라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을 기울여 왔으며, 전문적인 간호인력 양성과 자부심과 긍지로 일할 맛 나는 간호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녀는 “행복경영을 위해 관리자와 책임간호사들의 워크숍, 신규간호사 송년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했다”며 “이 때문에 많은 안산병원 간호사들이 안산병원 근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또한 커졌다”고 말했다. 안산병원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10% 가까이 줄어 들어 그녀와 간호부의 노력이 빛을 보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김정숙 간호부장은 고려대 안산병원 간호부를 ‘나눔과 봉사 그리고 화합’으로 요약했다. 공업도시인 안산시의 특징 상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이 없거나 혹은 다른 장애로 인해 병원을 찾기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안산병원 간호부는 2006년 80여명의 간호봉사단을 발족해 정기적으로 지역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가난한 외국인 환자가 많은 것이 안산지역의 특징”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안산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1년에 80여건 이상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숙 간호부장이 간호사의 길을 선택한 것은 아버지의 권유였다. 중환자실, 인공신장실을 거치면서 많은 선배 간호사들과 일을 하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동료’였다. 이 때문에 그녀는 간호부의 직원들 화합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생일축하이벤트’, ‘친절직원, 우수직원 포상’, ‘경력간호사 리더십개발 제공’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녀는 “내부직원 만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있다”며 “간호사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확고히 한다면 자부심과 긍지는 당연히 따르는 것이다”고 말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긍지 때문일까? 김정숙 간호부장의 자녀도 간호사의 길을 걷기 위해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그녀는 “언제나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가족에게 미안하다”며 “많은 이해로 감싸준 가족에게 고맙고 내 가족과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안산병원 간호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 | 원대기자 김준엽(재활의학과)

헬스가이드 2

“건강검진, 나이에 맞게 골라볼까?”

연령에 따라 검사해야할 항목 찾아야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올바른 선택이 요구된다. 내 부모님 또는 내 건강을 생각한 올바른 건강검진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고려대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김민지 교수(사진)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50대 이상 아버지들 내시경, 간 기능검사, 전립선 검사

50대 이상,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평소 음주와 흡연 여부에 따라 검사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꼭 검사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 내시경과 간 기능 검사다. 조기 위암이나 대장암의 경우는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40세 이후의 중년은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위암의 가족력, 위선종, 위점막의 이상, 위축성 위염, 헬리코박터 균 감염 등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매년 1회 검사를 받는 것이 좋고 대장 용종은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 50세 이상이 되면 대장에 이상 증상이 없어도 3-5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만약 용종이 있다면 용종절제술을 받아야 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음주와 흡연을 하고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에는 간기능 검사와 복부 초음파도 함께 받을 것을 추천한다. 고령에서 많이 발병하는 전립선 관련 질병 역시 PSA항원 수치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PSA 항원수치는 간단한 혈액검사로 판별이 가능하며,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 전립선 암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다. 흡연을 하여 폐암의 위험성이 있는 분은 흉부 X선 검사와 흉부 단층 촬영술이 폐암 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머니에게는 유방암과 자궁암 검사를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검사는 필수다. 유방암은 간단한 유방촬영기 검사나 초음파 정밀검사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으며, 자궁경부암 검사 역시 부인과 전문 검진을 받으면 쉽게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궁암과 유방암은 그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고 서구화된 생활습관으로 발병률이 높아지는 만큼 4,50대 어머니들에게 검사를 받는 것이 추천된다. 또한 50대 이상의 여성의 경우 골밀도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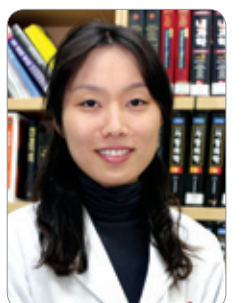
도 받아야 한다. 골밀도검사란 뼈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으로 골다공증이 발생하면 척추의 골절이나 대퇴골두의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여성에서 폐경이 되면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폐경이 된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골밀도를 확인하여 미리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해야 한다. 그리고 안과검사도 잊지 말아야 한다. 보통 시력은 나이가 들수록 저하되기 마련이지만 백내장과 녹내장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지 못하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생활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안과질환검사도 빼놓지 말고 받는 것이 좋다.

뇌혈관, 심혈관 검사도 잊지 말아야

빼놓지 말아야 할 사항이 바로 혈관질환이다. 그중에서도 간단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에 대처하기 위한 검사도 중요하다. 특히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은 뇌졸중, 협심증, 관상동맥협착 등과 같이 갑자기 발생해 1~2시간 이내에 사망까지 이르게 됨으로 검사를 통해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뇌혈관질환은 뇌혈관 MRI검사나 뇌혈관 조영술 같은 검사를 받으면 검진이 가능하며, 심혈관질환 역시 심장초음파, 운동부하검사와 같은 전문 검사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인 암도 검진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조기 암 검진을 위해서는 PET-CT검사를 받으면 된다. PET-CT검사는 암세포와 반응하는 조형제를 신체에 투입하고 CT검사를 받는 것으로, 암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최첨단 검사법이다.

건강검진 후 처방도 챙겨야 한다.

건강검진은 자신의 신체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건강검진센터 의료진의 상담도 받게 된다. 이 상담에서는 자신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등을 검사 결과와 함께 분석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제시해주게 된다. 이 때 자신 부모님에게 맞는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운동법도 함께 제시해 줌으로써 건강한 삶의 지침표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



가정의학과 김민지 교수

최재현 병원장 단원경찰서에서 건강특강 펼쳐 경찰관 300명 대상으로 건강 지킴 노하우 강의



고려대 안산병원 최재현 병원장이 4월 21일 단원경찰서에서 건강특강을 펼쳤다. 이번 건강특강은 단원경찰서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300여명의 현직 경찰관들이 참석해 건강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줬다.

‘현대인의 건강관리’를 주제로 1시간 동안 펼쳐진 강의는 단원경찰서 직원 교육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참가자들에게 건강관리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진행, 큰 호응을 얻었다. 최재현 병원장은 강의에서 “경찰이라는 본분이 규칙적인 생활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만큼 건강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고 설명하고 “균형 잡힌 식단, 자신에게 맞는 운동 등을 통해 항상 건강에 대한 관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케오두망차이의 심장에 사랑을 녹이다 안산병원 라오스 어린이 초청해 심장수술 해줘



고려대 안산병원은 라오스에서 심장병으로 고통 받고 있었던 케오두망차이(1세) 양을 한국으로 초청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 케오두망차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앓아오던 심장병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오는 그러던 중 지난 2009년 7월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의 라오스 방문을 통해 심장병으로 진단받고 안산병원의 초청,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다.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장기영 교수는 치료만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기에 안타까움이 커 밝은 미소와 건강을 찾아주고자 이렇게 초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케오두망차이의 수술을 맡은 흉부외과 신재승 교수는 “우리 병원에서는 어렵지 않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병인데,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수술을 통해 곧 건강을 회복하면 아이의 미소만큼 밝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케오두망차이의 건강을 기원했다. 🍎

고려대 안산병원은 인터넷 한국일보인 ‘한국아이닷컴’과 함께 4월 26일 안산병원에서 ‘희망샘운동’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정 혁군(14세, 남)에게 전달했다. ‘희망샘운동’은 고려대 안산병원과 한국아이닷컴이 공동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아, 청소년환자를 돕기 위한 인터넷 모금 운동이다. 정 혁군의 사연이 한국아이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되면서 여러 응원글과 함께 도움의 손길이 줄을 이어 총 1천 337만원의 후원금이 마련되어 정 혁군에게 전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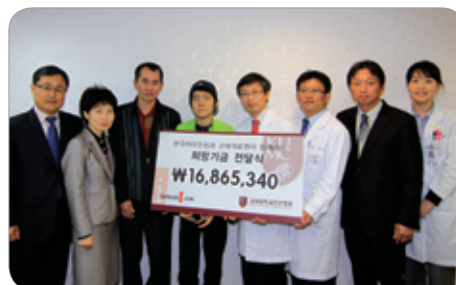
안산병원 ‘암’ 릴레이 건강강좌 시작! ‘간암’을 시작으로 암 바로 알리기에 나서



고려대 안산병원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암’ 바로 알기 건강강좌 릴레이를 시작했다. 그 첫 번째로 4월 2일 본관 2층 대강당에서 ‘간암’에 관한 강좌가 개최되었다.

‘간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건강강좌에선 안산병원 송태진(간담췌외과, 김정한(소화기내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간암의 최신 치료방법과 그 예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송태진 교수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자각증상을 느끼기 힘든 장기이다”라며 “평소 간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혈액검사 등을 통해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병원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건강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혁아! 이제 건강하게 가족여행 가자’ 한국아이닷컴과 희귀병환자에게 희망기금 전달



차상훈 안산병원 부원장은 전달식에서 “혁이가 치료를 잘 받아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고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란다”며 “한국아이닷컴과 함께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현 한국아이닷컴 상무이사도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간호부, 2010 봉사주간 성황리에 마쳐
환자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이벤트로 감동선사

간호부, 2010 봉사주간 성황리에 마쳐 환자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이벤트로 감동선사

고려대 안산병원 간호부(간호실장 김정숙)가 ‘2010 간호봉사주간’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캠페인 선포 및 총회,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와 봉사활동으로 병원을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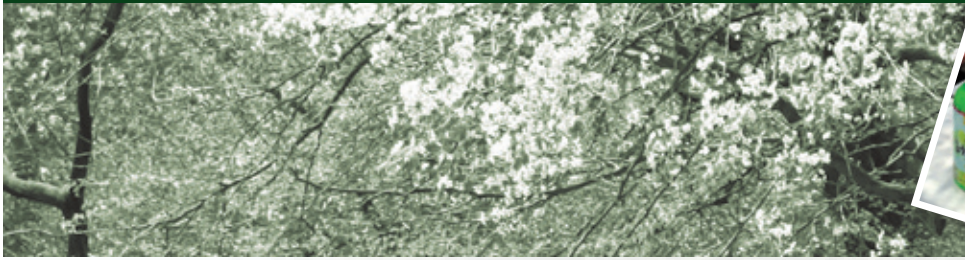
지역사회에도 사랑을 실천해 그 의미를 더했다. 안산병원 간호부는 지난 5월 10(월)일부터 14(금)일까지 5일간을 간호봉사주간으로 선정하고 평소 바쁜 업무 중에 뒤돌아보지 못 했던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했다. 첫째 날인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은 안산병원 본관 2층 대강당에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개최하고 각종 의류 및 속옷, 간식류, 비타민, 장난감 등을 판매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연말불우이웃돕기에 쓰일 예정이다. 12일(수)에는 안산병원을 찾는 고객들과 지역주민들을 직접 찾아 ▲혈압, 혈당 등 건강 체크 및 상담 ▲차서비스 ▲심폐소생술 교육 ▲풍선아트 및 종이접기 ▲간호활동 사진전을 펼쳤다. 또, 안산역에서 일일 건강상담소를 열고 바쁜 일상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주민들의 기초적인 건강 체크와 상담을 실시했다. 마지막 날인 14일(금)에는 맞춤형 봉사활동으로 병동 환자들을 찾았다. 각 병동 소속 간호사들은 손맛사지, 세발간호, 방울토마토와 고추 심기, 간식 만들기, 꽃바구니 만들기 등 따분한 병원생활에 지친 환자들을 위해 자신들이 숨겨둔 끼를 발산해 환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13일(목)에 있는 간호부 캠페인 선포식 및 간호사 총회에는 김정숙 간호부장 등 안산병원 간호사들과 최재현 병원장, 차상훈 진료부원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간호부는 캠페인 선포식에서 ‘Best nursing’ 상으로 지난 1년간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을 선발해 포상했다. 이어진 선포식에선 ‘제가 먼저 아끼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2010 캠페인 실천 다짐을 선언했고 케이크 절단과 63병동, NICU병동 간호사들의 축하 공연으로 선포식은 절정에 이르렀다. 김정숙 간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간호부 직원들에게 감사한다”며 “2010 캠페인 실천과 더불어 간호부가 안산병원 발전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최재현 병원장도 축사를 통해 “간호부는 병원을 보듬는 큰 어머니 같은 존재”라며 “(간호사)개개인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간호부의 발전, 안산병원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리산을 쉽게 느낄수 있는 길 **둘레길**

자연에서의 여유와 사람들의 향기가 솟아나는 그곳에서 봄을 느낀다



누구나 한번쯤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 지리산은 산의 매력을 모두 지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계절마다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반기는 산은 자연의 보고이자 마음의 여유를 주는 하나의 안식처가 된다. 그 중에서도 요사이 주목받고 있는 관광코스 중 하나가 바로 '둘레길'이다. 둘레길은 지리산을 두르는 길이란 의미로 지리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길이다. 특히 마을과 산, 꽃과 그림 같은 풍광이 수놓아진 둘레길은 올레길과 함께 추천할 만한 트래킹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자연에 향기와 오가는 인사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둘레길은 완전한 환원 형태는 아니지만 숲길, 강변길, 논둑길, 옛길 등 다양한 길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등산과 다르게 그림의 미학을 지향하고 있으며, 고즈넉한 마을의 풍경, 어디선가 내 이름을 불러 줄 것 같은 마을 사람들, 지나는 사람들과의 인사, 작은 가게의 막걸리가 어우러져 독특한 경험을 선사한다. 우리가 시작한 코스는 가장 끝자락에 있는 운봉-주천 구간으로 14.3km의 코스였다. 주천에서 시작해 해발 500m까지 이어지는 코스는 힘이들지만 올라서 내려보는 경치는 잊을 수 없는 운치를 선사한다. 또 이어지는 산길에서의 봄꽃 역시 매력을 발산하기 충분하다.

숲길을 지나 마을을 넘어

산길을 지나는 사람마다 인사와 웃음을 건네는 사람들 속에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정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산을 내려와 잠시 동안 허기를 달랠 수 있는 파전과 동동주 역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봄의 햇살을 느끼며 마을의 한 가운데를 지나 저마다 봄일에 바쁜 사람들. 그리고 걸음걸음마다 발끝으로 느껴지는 흙과 자연은 둘레길에서 있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주천-운봉 코스는 산을 벗어나면 마을과 마을로 이어지는 길들이 연속된다. 이곳에서 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것을 찾기보다는 작은 시골마을을 걸으며, 사람의 향기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매력일 것이다. 특히 안내에는 없지만 노치마을에 눈에 띄는 소나무는 1,000년이 넘는 것이라고 하니 꼭 한 번 찾아가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강변의 갈대와 벚꽃의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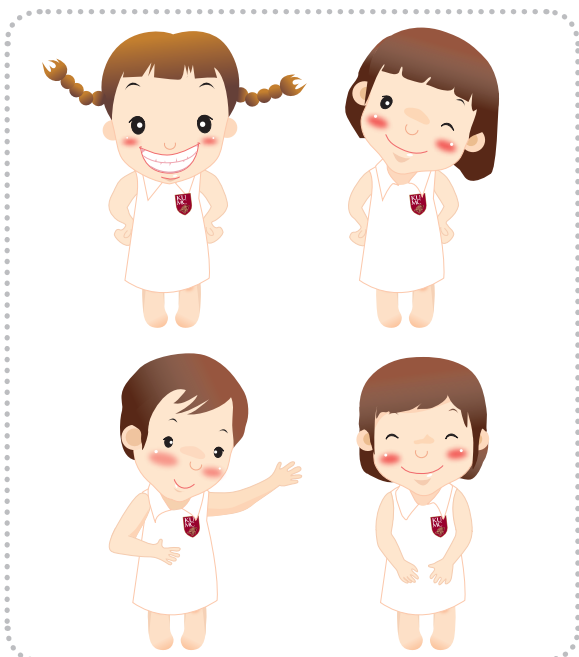
특이한 점은 무인으로 판매하는 커피 휴식처가 있다는 것. 물론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저분하거나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와는 다른 여유를 느낄 수 있으므로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노치마을을 지나면 강변길이 이어지기 시작한다. 갈대와 어우러진 정취는 가을이 제 맛이겠지만 봄바람의 살랑거림 역시 싫지만은 않다. 뚝이 이어지는 길 만큼 아름다움도 이어진다. 운봉에 도착하기 얼마 전부터 시작되는 꽃길 역시 잊지 못할 것이다. 둘레길은 각 코스마다 여유와 자연을 내어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정화시켜 준다. 도시의 찌든 삶에 지쳐있는 사람이라면 둘레길을 통해 일상의 소소함과 자연의 위대함,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훈훈함을 주는 둘레길을 한 번 가보는 것은 어떨까.

글·사진 | 원내기자 박준우(시설팀)

지리산둘레길 소개 <http://www.trail.or.kr>

친절리더칼럼

5월의 신록처럼~ 친절리더처럼~



고려대 안산병원 친절리더팀은 열정적인 이은순 팀장을 주축으로 교육팀,모니터링팀, 이벤트팀,홍보팀으로 팀을 나누어 활동 중에 있다. 필자는 교육팀에 소속되면서 모니터링 팀장을 맡게 되었다. 교육팀에서는 지난 3월, 소강당에서 이를 동안 CS강사교육을 힘들게 받고 마지막 날에는 교육할 내용을 팀원들이 직접 작성해서 '모의시험'도 실시했다. CS교육 담당 강사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참석자 모두가 함께 보면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시간을 통해 교육팀 일원들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

다. 교육 후 교육팀은 친절교육이 환자들과 자주 마주치는 부서 중 꼭 친절교육이 필요한 부서인 주차 관리요원, 청소 업무원을 시작으로 원무팀, 병동, 중환자실 등 40여개 부서의 친절조회를 실시하였다. 필자는 신생아중환자실 등 7개 부서에서 친절조회를 실시하면서 조회주체는 MOT, 미소, 인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나를 포함한 교육팀 구성원들은 친절리더로서 병원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사고, 점점의 중요성, 쉽지만 실천이 잘 안되는 미소나 인사를 강조함으로써 적은 시간이지만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구축에 기여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다. 그동안 각 부서별로 친절조회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친절리더팀에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조회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많이 접했다. 또, 정기적으로 친절조회를 실시하지 않던 부서에서도 지속적인 친절조회가 고객만족 이전에 내부고객을 하나로 결속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으며 만족감을 보였다.

교육팀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이 잘 안되는 친절주제를 정하고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3, 4월의 주제는 '미소'였다. 지난 3월 화이트테이를 맞이해 안산병원 직원 중 미소가 아름다운 직원을 뽑아 사진촬영을 하고 심사를 거쳐 베스트 미소직원을 포상하였다. 5, 6월의 주제는 '인사'이다. 모니터링팀에서는 사전조사로 안산병원 직원들이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인사하는 거리로 만든 2층 구름다리(본관 지하 1층의 CCTV 분석과 4개 병동을 20분간 관찰했다. 그 결과는 조금 실망스러웠다. 인사하는 거리에서는 서로 고개만 '까

딱' 하는 정도의 인사가 대부분이었으며 무표정하고 인사말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1층에서는 평소 친분이 있는 직원간에는 인사말과 함께 인사를 잘했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간에는 고개를 돌리거나 무표정하게 고개만 숙이는 정도였다. 병동에서는 의사,간호사, 의사,의사,간호사,간호사, 간호사,환자를 살펴보았는데,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얼굴이 마주치지 않으면 무심하게 인사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얼굴이 마주치면 마지못해 무표정하게 고개만 숙이는 정도의 인사였다. 의사와 의사의 경우 교수님이나 스텝선생님께는 인사를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관심하게 지나치거나 인사말 없이 고개만 숙이는 인사였다. 간호사와 간호사인 경우는 그래도 반갑게 인사를 했으며 간호사와 환자의 경우도 인사를 하지만 소극적이었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무심하게 인사를 안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친절리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안산병원 친절리더팀은 인사의 중요성을 포스터, 슬로건, 친절조회 활동을 통해 강조하고 6월 말경 다시 한 번 인사에 대해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 올해 10월경에는 외부 모니터링팀으로(아파트 부녀회) 하여금 외부고객의 눈으로 안산병원 직원들의 친절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할 계획이다. 우리 친절리더팀의 작은 몸짓이 내부고객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내고 외부고객에게 감동으로 다가가는 안산병원의 친절문화를 이끌어갈길 기대한다.

글 | 안산병원 81병동 정금옥 수간호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 * : 선택진료의사

| 대표전화 : 1577-7516

| 인터넷예약 : <http://ansan.kumc.or.kr>

| 응급의료센터 : 031) 412-5381

| 기준 : 2010년 5월 14일

과별(전화)		의사명	오전	오후	전 문 진 료 분 야
내과 ☎5010	소화기	*최재현	월,목		대장·소장질환, 치료내시경
		*이상우	화,금	화	위·식도·소장질환,소화관운동질환,치료내시경
		*임형준	월,화,목	화,목	간(간염,간암,간경변)
		*구자설	목	월,목	대장·소장질환, 치료내시경(토요일:3주)
		*정성우	월,수	수	위·식도질환,소화관운동질환,치료내시경(토요일:1주)
		*김정환	수,금	수	간염,간암,간경변(토요일:2주)
		김진남	화,금		소화기질환,담도,췌장질환(토요일:4주)
		김승영		월	소화기질환(토요일:4주)
		박재연		화	소화기질환
		권보성		금	소화기질환
내과 ☎5011	순환기	이상규		목	소화기질환
		*송우혁	화,목	월	협심증,심혈관중재술,고지혈증,고혈압,심근경색,(홍통클리닉)
		*안정천		화,목	협심증,심혈관중재술,고지혈증,고혈압,심근경색,(홍통클리닉)
		임홍의	수	수	부정맥
		*김성환	월	목,금	심장판막질환,심부전증
		*임상엽	월,금	수	협심증,심혈관중재술,고지혈증,고혈압,심근경색,(홍통클리닉)
		*김용현	수,목	월	고혈압,심장판막질환,심부전증
	호흡기 (:클리닉)	신 철	수	(월, 수)	수면장애(수면무호흡,코골이,기면증 등),폐질환,수면클리닉-월,수 오후
		*김제형	월,목	화,목	호흡기질환
		*정기환	화, 금	금	결핵,폐렴,기관지내시경,만성폐쇄성폐질환,폐암
내과 ☎5010	신장	김세중		수,금	호흡기질환
		*차대룡	월,수,목	수	신장이식,사구체신염,부종,투석
		*강영선	화,금	화,목	고혈압,당뇨,신질환,혈뇨,부종,투석,이식
		차진주		월,금	부종,투석,혈뇨당뇨
		현영울	월,목		고혈압,당뇨,신질환,혈뇨,부종,투석,이식
	내분비	*김난희	월,화,수	월	당뇨,갑상선,비만,골다공증,뇌하수체
		*서지아	화,목,금	화	당뇨,갑상선,비만,골다공증,뇌하수체
		은채령	수	수,목	당뇨,갑상선,비만,골다공증,뇌하수체
	감염	*박대원	월,수,목	목	열,열병,염증성질환
		최원석	화,금	월	열,열병,염증성질환
내과 ☎5010	종양혈액	*최인근	화,금	월,수	종양질환,혈액질환,항암치료
		*성화정	월,수,목	화	혈액암,종양,혈액질환,항암치료,빈혈
	류마티스	*최성재	수,금	월,수	류마티스 질환
	내과일반	일반의	토	월~금	일반진료
간담 ☎5030	상부 위장관외과 ☎5030	*김성주	목	월	위암,상부위장관,탈장
		*박성흠	금	화	위암,상부위장관,탈장
		*김종한	수	금	위암,상부위장관,탈장
간담 ☎5030	간담 ☎5030	*송태진	금		간,췌장,담도질환,장기이식,혈관
		*한형준	월		간,췌장,담도질환,장기이식
		*엄준원	화	목	대장항문학
대장 ☎5030	대장항문외과 ☎5030	류제석	수,토	금	대장항문학(금:1,3,5주)(토:2,4주)
		한기빈		월,금	대장항문학(금:2,4주)
유방 ☎5030	유방내분비외과 ☎5030	*손길수	월	수	유방,갑상선,내분비학
		*류우상	토	화	유방,갑상선,내분비학(토:1,3,5주)
정형 ☎5040	정형외과 ☎5040	김성곤	월	수	인공관절
		*박정호	수	월	어깨팔꿈치관절,스포츠의학
		*박종웅	화,목	화	수부외과,미세재건외과,족부
		*서동훈	수,금	화	고관절,외상
		*배지훈	화,목	금	무릎관절,인공관절,무릎인대손상,골다공증
		홍재영	월	수,목	척추질환,소아
		전우주		화,금	수부
신경 ☎5050	신경외과 ☎5050 (:클리닉)	*박정울	월,(화),목	(화),수	정위기능, 뇌종양, (화요일-종일클리닉)
		*임동준	화,목	(월),(목)	뇌혈관질환,뇌졸중,두통,뇌종양(뇌혈관클리닉-화 오후)
		*김세훈	수, 금	월	퇴행성 및 외상성 척추질환 및 종양
		일반의		금	신경외과 일반
흉부 ☎5060	흉부외과 ☎5060	이인성	수, 금		선천성 심장수술,일반 흉부수술
		*박형주	월	월	오목가슴,폐암,식도암,선천성 심장수술,일반흉부수술
		*신재승	화	화	관상동맥질환,대동맥질환,심부전증
		*조원민		목	심장판막질환,부정맥수술,말초혈관질환수술,다한증,최소침습수술
		*정진용		수, 금	기관,식도,다한증,폐질환,흉강경수술,하지정맥
		일반의		금	일반진료
성형 ☎5070	성형외과 ☎5070	*윤율식	월, 목	목	유방,체형교정,미용(눈,코,안면주름),선천성기형,수부재건
		*김덕우	수	월,수	미세수술,지방흡입,안면성형,귀성형
산부 ☎5080	산부인과 ☎5080 (:클리닉)	일반의		금	성형외과 일반
		김해중	화,(수)	목,(수)	고위험임신,주산기질환(정밀초음파클리닉-수요일종일)
		*이낙우	월, 목	(화)	부인과 종양,복강경수술(질확대경클리닉-화 오후-예약)
		이경옥	수	월	불임,폐경기질환,부인과내분비질환,복강경수술(불임클리닉-예약환자만)
		김재원	금,토	수	부인과종양,일반부인과,복강경수술(토요일:3,4,5,6월)
		정현철	금	화	주산기질환, 일반부인과(토요일:11,12,1,2월)
소아 ☎5090	소아청소년과 ☎5090 (:클리닉)	윤영선		수,금	주산기질환, 일반부인과(토요일:7,8,9,10월)
		*이정화	월, 목	화, (목)	면역,천식질환(면역·천식클리닉-목 오후)
		*최병민	화, (금)	금	신생아(신생아클리닉-금 오전)
		*우찬욱	수	(화),수	혈액종양(클리닉-화 오후)(토:5주)
		*장기영	화,목	(화),(목)	심장(클리닉,심장초음파-화오후)(심,초-목오후)(토:1주)
		*김윤경	(해 외 연 수)		감염,예방접종(예방접종클리닉-화 오전)
		*은소희	수, 금	(월), 수	간질,발달장애,두통,소아신경,(소아뇌·신경클리닉-월 오후)(토:2주)
		이영준	월	월,(수),금	내분비,성장,비만,유전대사(클리닉-수 오후)(토:3주)
		임형은	금	월,목,(금)	신장,위장관(클리닉-금 오후)(토:4주)
		일반의		화,목	일반 소아과
핵의 ☎5250	핵의학과 ☎5250	김경민	월~금	월~금	핵의학진단 및 치료(종양핵의학)
		일반의	월~금	월~금	핵의학과일반

과별(전화)	의사명	오전	오후	전 문 진 료 분 야
정신과 ☎5140 (:클리닉)	*한창수	화,목	월,화	우울증,스트레스,기억력클리닉,치매
	*김용구	월,수	화,수	우울,불안증,공황장애,정신분열증,스트레스,알콜중독
	*고영훈	월,수	월,수	정신분열증,여성정신의학,뇌손상후유증,알콜중독,약물
	*윤호경	금	목,금	기분장애,적응장애,수면장애
	양재원	금		소아청소년,학습장애
신경과 ☎5150	일반의			정신과질환
	이대희	월,화,수	월	간질,파킨슨
	*박문호	월, 수, 목	수	뇌졸중,치매(목 오전-치매 재진환자만 진료)
	권도영	화, 목	월, 목	파킨슨,이상운동장애(화 오전-파킨슨 재진환자만)
안과 ☎5160 (:클리닉)	일반의	금	화, 금	두통,어지러움,간질
	*백세현	월	월, 목	*안성형<눈물질환(레이저수술),안과골절,외안,중앙,갑상선,안검내반,안검하수>,간성안,망막,백내장,녹내장 *미용성형<쌍꺼풀·눈썹치짐교정,주름제거(레이저,보톡스,필러주입)>(안성형(안검,안와,누기),미용성형,녹내장클리닉-월,목 오후)
	*김승현	화	금	사시,약시,소아,녹내장,신경안과,(사시,소아,신경,약시,녹내장클리닉)
	*김성우	(화),목,금	화	망막(당뇨,고혈압성,미숙아).포도막,백내장,녹내장(수요전예약환자)
	송종석		금	각막이식,백내장,시력교정술(라식,라섹),콘택트렌즈
	김 수	수		망막,백내장
	이 화		수	백내장,안성형
	이종연	화,금		녹내장,백내장
	신형호	수		백내장,안성형
이비인후과 ☎5170 (:클리닉)	*권순영	화	화, 목	두경부암,갑상선암,인후두질환,음성장애
	*이승훈	(해 외 연 수)		코골이,부비동염,코성형,소아수면무호흡증,후각장애
	*최 준	월, 금	(금)	만성중이염,어지럼증,소아난청,안면마비,이명,귀종양(어지럼클리닉-금오후)
	*최지호	화, 목,(금)	목	부비동염,수면무호흡증,알레르기비염,코성형(수면클리닉-금오전)
	*김은중	월	월,수	알레르기비염,코성형,부비동염,수면무호흡,후각장애,소아
	홍석진	수,토	월	음성장애,갑상선종양,두경부양성종물(토:2,4주)
	전현수	수,목		난청,만성중이염,어지럼,이명,소아이비인후과
피부과 ☎5180 (:클리닉)	일반의	토	수	이비인후과질환(토:1,3,5주)
	*김일환	월,화,목,금	(목)	여드름,박피,액취증,모발,피부암,백반증,레이저치료(목오후-레이저클리닉예약만)(금요일 1주,4주,5주 : 오전진료 가능)(금요일 2주,3주 : 진료없음)
	*손상욱	월,목	월,목	아토피,피부미용,알러지성피부질환,구강점막질환
	최재은	화,금	화,수,금	미용피부외과,알러지성피부질환,구강점막질환,베제트(토:5주)
	일반의	수,토	월,화,수,금	광선치료,건선,백반증,알레르기(토요일:1주~4주)
비뇨기과 ☎5190 (:클리닉)	*박홍석	월,목	월	중앙,전립선
	*배재현	(해 외 연 수)		복강경수술,요실금,여성배뇨장애
	*최 훈	금	화,수,금	배뇨장애,결석,요실금,내비뇨(복강경)
	강성구	화		남성학
	장훈아		목	소아배뇨,야뇨
재활의학과 ☎5330 (:클리닉)	일반의	수		일반비뇨기질환
	*김동휘	월,수,(목)	목	뇌졸중,말초신경병증,언어및 인지재활,통증(목:오전 통증클리닉 예약환자 -두통,흉통,복통)
	*황미령	화,금	월,수,(금)	소아재활,척추손상,전기진단,통증,심폐질환(족부클리닉-금 오후 격주)
	김리나	목	화	스포츠의학,족부,족관절통증,견관절통증,요통
	일반의		금	재활의학과 일반
가정의학과 ☎5360	김도훈	월,금	수	건강증진,만성질환관리,노인병
	김민지	목	월,금	금연,비만,여행의학
	신유나	화,수	목	금연,비만,여행의학
	일반의		화, 수	건강증진
치과 ☎5370	*류재준	화,목,금	월,금	심미보철,임프란트,가철성의치
	*장현성	(해 외 연 수)		구강악안면 외과,임프란트,외과
	강정경	월,화,목	화,목,금	심미보철,가철성의치,임플란트
	임영신	월,수,금	월,화,수,목	보존과
	이의석		화	구강악안면외과
응급의학과 ☎5381	일반의	수	월,화,수,목	치과 일반
	이성우	화, 금	화, 금	응급처치,중환자의학
	문성우	월, 수	수	응급처치,중독학
산업의학과 ☎5390	박종태	화, 목	화	보건관리,직업성질환,환경의학
	전형준	월,화,목	월,화,목,금	건강진단,만성통증,임상예방의학
	고재우	수	수,목	건강진단,직업성질환,환경의학
영상의학과 ☎5220	일반의	금	월,금	산업의학과 일반
	*차상훈	월,화,수,금	수	복부,비뇨생식기계
	*김백현	월,수,금	월,목	골,관절,척추,사지혈관
	*이기열	화,수	화	흉부
	*정환훈	수,금	수	중재,복부
	서보경	월,화,금	수,금	유방
	이영흔	(해 외 연 수)		신경두경부,갑상선
	이승화	목, 금	목	중재,복부,심장
	제보경	화	화,금	소아
	서형석		화,목	신경두경부,갑상선
방사선 종양학과 ☎6850	이근영	월,화,목	화,수,금	골,관절,척추
	염석규	월,수,목	월,화,수	복부,비뇨생식기계
	윤원선	월,수,금	월, 수	방사선종양학
	일반의	목	목	방사선종양일반
통증클리닉 ☎6744	*양종윤	월,화,수,금	월, 수	통증치료(신경병성,대상포진,요통클리닉)
	옥세진		목	통증치료(요통클리닉)